아틀란티스와 에덴

(눅3:23-38)

23.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24. 그 위는 맛닷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25. 그 위는 맛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낙개요
38.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틀란티스와 에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틀란티스를 다 들어보셨지요?
고대의 잃어버린 도시인데, 이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 대화편에서 한번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플라톤의 아틀란티스에 대한 언급에 대해 지금까지도 탐험가와 고고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이 아틀란티스가 단순히 신화나 전설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는 화산섬인데 땅이 비옥해서 일 년에 2모작을 하고 초원이 발달해서 많은 동식물이 번성하며 또 지하자원이 풍부했고, 그래서 넘쳐나는 금과 은으로 번쩍거리는 도시들이 서 있었던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항해술과 천문학이 고도로 발달한 그런 문명을 꽃피웠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것이 자연재앙에 의해서 일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미 코스타리카의 정글 속에 묻혀있을 것이다', 또 해양학자들은 '아니다, 지구의 수면이 훨씬 낮은 상태였다가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에게 해의 테라 섬 앞바다

에 묻혀있을 것이다', 또 플라톤의 말에 근거해서 '지브롤터 해협의 바다 속에 있을 것이다' 뭐 많은 추측들을 하면서 탐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에덴과 신화의 땅 아틀란티스를 나란히 갖다 비교를 하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에덴도 아틀란티스도 다 잃어버린 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말 아니었습니까?
기쁨의 땅입니다.
아틀란티스도 기쁨의 땅입니다.
왜 기쁨의 땅입니까?
아틀란티스를 묘사하는 키워드는 금입니다, 금.
인류역사를 관통해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 뭡니까? 대표적이 이유가 바로 금입니다.
사랑이 기쁘지만, 슬픔의 이유도 됩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금이에요.
그래서 아틀란티스가 기쁨의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 때문에.
에덴이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아틀란티스와 에덴이 비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두 말 할 것도 없이 족보 같아요.
그래서 모든 주석서들이 예수님의 족보라고 생각하고,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너무나 다른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마태복음의 족보와 비교해서 해석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흘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 이 말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 '사람들이 알기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요셉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분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내가 지금 족보 형태를 띠고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족보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비교해보면 '요셉의 위는 헬리요…' 하고 나오는데, 다시 말해 요셉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의 족보가 진짜 족보에요.
헬리라고 하는 게 누구냐 라는 것 때문에 학자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혹시 계대결혼 상 야곱이 형인데 아이가 없었으므로 동생인 헬리가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 요셉이 아니겠느냐 추측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계통이 요셉부터 다윗까지는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서 썼다고 하는 학자들의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다윗부터 요셉까지 마리아의 계보를 썼다면 이건 정식으로 족보가 아닙니다.
왜 이걸 굳이 예수님의 족보로 생각하려고 합니까?
마태의 족보는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뚫고 지나서 아담까지 이르고 하나님까지 언급을 합니다.
이건 족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족보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족보로서는.
그 앞에 원역사가 있지요, 아담과 노아에 이르는…
그런데 지금 누가가 쓰려고 하는 것은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름들을 가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1500년대 조선 중기에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들을 가지고 전세계의 역사를 다 가리킬 수가 있지요.
그리고 고려시대, 그 앞서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 이것은 다 유럽의 중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지역의 역사를 가지고 온 세상의 역사의 시간대를 다 지칭할 수가 있어요. 자의 눈금처럼.
이렇게 누가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아담으로부터 요셉까지 이르는 인류의 역사를 여기서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까지 도달하는 인류의 역사를 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담부터 그 유구한 역사가 흐르고 흐르고 흐른 뒤에 뻥! 하고 나

타난 사건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접어들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이 사건은 이렇게 아담서부터 유구한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예수님에게서 뻥! 터진 내용의 사건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만큼 이 사건의 의미는 그 장구한 세월 끝에 일어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의미의 사건이었다는 얘깁니다.

그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지으신 인간 아담에게서 이 역사 속에서 상실되어버린 에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사건에서 이 땅 위에 현실적으로 다시 드러났다는 것을 탐험가인 누가의 눈으로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아틀란티스를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탐험가와 학자들과 고고학자들 해양학자들이 찾아내려고 애썼지만 찾지 못한 그것보다 더 심각한 잃어버린 에덴이 지금 누가의 눈앞에 이 예수님의 세례사건이 보고되고 있는 이 보고를 보면서 누가의 눈앞에 에덴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의 그 장구한 세월, 도대체 몇 천 년일지 몇 만 년일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장구한 세월이 흐른 뒤에 잃어버린 땅 에덴이 이곳에 나타난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이분에게서 일어난 이 사건이 에덴이라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 세례사건에서 나타난 재등장한 에덴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를 누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덴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발견하시는데, 당신이 십자가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또 당신이 십자가의 주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례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이 에덴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고, 역사 속에서 장구한 세월동안 사라져서 묻혀있던 에덴이 이 땅의 현실, 서울 한복판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매일매일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가 얘기하려고 하나님까지 이르는 역사이야기를 거꾸로 상향식으로 서술해가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긴긴 세월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긴긴 세월동안 숨겨져 있던 에덴이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세례사건에서 보여진 에덴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등지겠다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만을 향하겠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럴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지금 하늘은 여기 와있는데, 안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일, 완전히 사라졌던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직접 소통을 하는 역사가 아담 이후에 그 긴긴 세월 끝에 드디어 처음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완벽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신앙의 조상들에게서 하나님이 그들과 대면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하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소통하시는 가장 완전한 형태가 예수님 세례 때 일어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에게 일어나신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는 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전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는 이 역사, 이게 바로 에덴이었다고 누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바로 이 사건 속에서 누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는 세례가 필요 없었지요, 죄 짓기 전이니까.
그 대신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생각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지!'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는 태어날 때부터 비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채워질 때 마음이 불러지면서 거기서 만족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에게 주어진 자기 마음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재료는 하나님 한분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아담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마음에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러지면서 기뻤지요, 마음이 채워져야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보면서 하나님만으로 마음의 배를 채우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기뻐하셨습니다.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고 하신 하나님의 고백이 아담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피조물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왜?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으로 배부르겠다고 끙끙거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차면 울고, 하나님이 마음에 차면 방긋 웃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담이 예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기뻐하는 아담의 기쁨과 하나님만으로 기쁨의 이유를 삼고 있는 아담을 보시면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모아져 있는 땅, 기쁨의 땅, 에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이 죄를 집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뭐냐 하면 하나님 말고도 마음에 채워서 기쁠만한 이유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기쁨의 이유로, 행복의 이유로, 만족의 이유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는 겁니다.
그때 범죄하고 나서 옷을 벗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발가벗은 것을 자기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기쁨의 이유에서 제쳐놓고 나니까 자기들이 기쁨의 이유로 삼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발가벗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 나오면 그게 기쁨의 이유가 돼요, 그게 옷이에요.
내가 회사 사장이면 옷이에요,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진 채 내 마음을 채워서 기뻐야 될 이유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뒤의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직전 요셉까지 이르는 그 구간에 해당되는 모든 역사, 지금 유대인의 이름들을 자의 눈금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시대에 해당되는 아시아, 유럽의 상황이 있었겠지요?
또 다윗 때는 다윗 시대에 해당되는 아시아, 유럽의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전 인류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전 인류역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 안에서 내 배를 불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의 이유를 찾아 헤매는 역사였고, 그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아틀란티스를 찾는 탐험가들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아틀란티스가 기쁨의 땅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금, 풍부한 지하자원, 풍요로운 연중 이모작의 비옥한 땅, 수없이 많은 동식물,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움.
그것이 바로 기쁨의 이유가 되는 땅입니다.
아틀란티스를 찾아 헤매고 있는 이 마음이 인류 역사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왔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왔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을 찾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던 거예요.
이제 그것이 끝난다는 얘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서 이제 이 역사가 끝이 난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걱정해야 되고, 승진하면 좋아해야 되고, 승진 못하면 걱정해야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아해야 되고, 못 가면 걱정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을 등진 채 다른 기쁨의 이유, 다른 슬픔의 이유 때

문에 울고 웃으며 진행되는 역사가 끝이 난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끝이 납니까?
세례가 표현해줍니다.
이제 이 세상을 등집니다, 등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의 이유를 더 이상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으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 일에서 세상의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모든 역사 속의 사람들이 다 보고 울 상황, 다 보고 웃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으면서 등을 돌리고 세상일이라면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금을 찾아서, 풍요를 찾아서 인간이 움직이는 역사가 끝이 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을 등진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움직이는 역사가 새롭게 쓰여 질 것이라는 얘깁니다.
아담부터 예수님 아버지 요셉까지의 이 시간이 가리키는 인류의 모든 역사와는 완전히 딴판인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저벅저벅 걸어 다니시며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누가가 내다보면서 특별히 이러한 관점이 강하게 표현된 것이 사도행전이었다는 얘기에요.

이 족보는 족보가 아닙니다.
인류역사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인류역사 전체를 누가가 가리키고 싶었던 이유는, 이 역사의 내용이 완전히 끝이 나고 예수를 받아들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에덴의 원형이 다시 복구되고 재등장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담부터 예수님 직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금의 땅, 풍요의 땅 아틀란티스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 등지고 기쁨과 만족의 이유를 하나님만으로 정한 자들을 향해 하늘 문을 여시고 기뻐하는 아들임을 인치시며 하나님 마음에도 기쁨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역사를 써 가시는 이 아름다운 에덴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